

## 강점 활용 척도의 타당화 연구

박 부 금 이 희 경<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 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 SUS)의 한국판(K-SUS)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과 일반인 453명(남자 155명, 여자 298명)을 대상으로 강점 활용,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삶의 만족도, 자기 효능감, 희망, 심리적 안녕감, 무망감,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저자의 단일 요인구조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일반인 표본에서는 2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강점 활용 척도의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산출을 통해 양호한 내적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5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에서, K-SUS는 정적 정서, 자기 효능감, 희망,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적 정서, 무망감,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수렴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K-SUS는 자기 효능감, 희망과의 설명량을 넘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 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한국판 강점 활용의 잠재적 구조에 대한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과 K-SUS의 활용성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강점, 강점 활용, 강점 활용 척도, 신뢰도, 타당도, 긍정심리학

<sup>†</sup> 교신저자: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296, E-mail: ahalee@catholic.ac.kr

최근 긍정심리학은 성격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성격 강점을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좋은 삶의 영위와 최적 기능의 발현이라는 긍정심리학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과 심리학자들의 연구자료, 그리고 청소년 발달의 주요 이론을 검토하여 비교적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6개 영역의 덕성<sup>1)</sup>(virtues)과 24개의 성격 강점<sup>2)</sup>(character strengths)을 선정하고, 이러한 강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VIA 강점 척도(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를 제작하였다. VIA 강점 척도의 개발로 성격 강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성격 강점을 다룬 실증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성격 강점의 분포를 성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과 연령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들(Linley et al., 2007; Matthews et al., 2006; Park, Peterson, 2005; Park, Peterson & Seligman, 2006; Shimai, Otake, Park, Peterson, & Seligman, 2006)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적 강점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Peterson, Ruch, Beermann, Park & Seligman, 2007; Shimai et al., 2006)이다. 국내에서도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

1) 덕성(virtues): 지혜(wisdom), 자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

2) 24개 성격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영성

여 성격 강점을 측정하는 성격강점검사(권석만, 2009)가 개발되었으며, 성격 강점의 분포를 성인(최은미, 2009), 사관생도(김광은 등, 2010), 청소년(김정주, 2010, 안선영, 2010; 원두리, 2011), 초등학생(문용린 등, 2008)을 대상으로 확인하였고, 성격 강점과 주관적 안녕감(이현주 등, 2011), 성격 강점과 삶의 만족도, 행복 경험(임영진, 2010)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격 강점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밝힌 강점 인식 수준의 연구이었고, 강점을 인식한 후에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격 강점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인이 성격강점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격 강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Seligman 등(2005)의 연구에서 일주일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향후 6개월간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과 성격 강점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은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하고, 더불어 강점의 활용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임영진, 2010).

이런 측면에서 강점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강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Linley와 Harrington(2006)은 강점 활용에서 ‘활용’은 무언가를 이익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강점 활용은 강점 인식만큼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추구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과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

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따라서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인 강점을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강점 연구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패러다임은 ‘가장 탁월하고 출중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가장 부진하고 취약한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Snyder & Lopez, 2003). 더불어 강점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축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로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 인식을 넘어 강점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강점을 활용할 때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며 어떤 것을 더 잘 성취하게 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강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점 활용이 유기체적 가치, 강점 인식과 더불어 주관적 활력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잘 예측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기 효율성을 통제했을 때, 유기체적 가치와 강점 활용은 단순히 강점을 인식하는 것 보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가치와 잘 접촉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강점을 경험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강점을 인식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것이 안녕감에 더 중요하며 강점 활용과 강점 인식이 잠재적으로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강점을 활용하는 빈도가 강점 연구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결과로 볼 수 있다.

강점 활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Linley와 Harrington(2006)은 강점 활용의 두 가지 중요한 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강점은 측정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는 심리적 구조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강점은 사람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개인 내적 특성으로 강점을 활용할 때 최적의 기능과 수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강점을 활용한다는 관점은 성, 인종, 종교, 성적 취향들과 관련이 없으며, 사람들은 이들 요소와 관련이 없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강점의 언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재능과 능력을 기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강점 활용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 Buckingham(2007)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 가능성을 약점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점 활용보다 약점 보완에 더 집중하고 있으나, 약점의 부분에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없으므로 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점 인식, 태도 및 활용을 본 이정순(2011)의 연구에서도 강점 인식과 활용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점에 대한 태도와 강점 활용 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강점 인식이 곧 강점 활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강점에 대한

태도가 강점 활용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강점 활용의 종단적 연구에서 Wood 등 (2010)은 강점 활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안녕감 증가를 예측하며 성격 강점은 소유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라도 강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과 창의적이 되려는 의도와 기회를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강점 활용은 자기 효능감, 활력, 긍정 정서와 관련이 깊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효능감이나 긍정적인 사회 비교를 통해 더 높은 안녕감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강점 활용은 강점 인식을 연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Buckingham, 2007). VIA(Peterson & Seligman, 2004)의 개발로 성격 강점을 측정하고 대표 강점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성격 강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강점 활용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Govindji와 Linley(2007)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격 강점의 활용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성격 강점의 연구를 실용적인 수준에까지 확장하고자 강점 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 SUS)를 개발하였다. 강점 활용 척도는 개인이 강점 인식뿐만 아니라 강점을 활용할 때 진정한 수행 향상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Linley & Harrington, 2006)는 주장

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들은 강점 활용 척도 개발을 위해 먼저 긍정심리학 문헌을 검토하여 강점 활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문항 선정 근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강점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는가'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높은 14문항이 선정되었고 강점 활용 척도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Wood 등, 2010)를 통해 강점 활용이 안녕감을 잘 예측해주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강점 활용 척도를 엄정한 번역, 역번역 방식 및 원어민 감수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US: K-SU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SUS의 요인구조(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와 신뢰도(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수렴 타당도, 준거 타당도, 변별 유용성의 추정치를 구함으로써 이 도구의 심리 측정적 속성을 조사하였다. K-SUS의 수렴 타당도를 위해 강점 활용이 희망, 자기 효능감, 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희망 이론은 인간의 행위들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모든 사람이 목표 지향적이라고 전제하면 강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로와 동인을 발생시켜 목표를 더 잘 성취하게 되고(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목표를 성취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97)으로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성취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정적 정서는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감과 안녕감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Diener & Larsen, 1993; Myers & Diener, 1995;

Burns et al., 2008)는 점에서 이들 변인들을 수렴 타당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준거 타당도를 위해 강점 활용이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무망감, 부적 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상관이 있으나 구별되는 것으로(Keyes, Shmotkin & Ryff, 2002) 주관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정하는 도구로(Diener, 1984, Diener & Diener, 1995; Diener, Shu, Lucas, & Smith, 1999)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한 건강한 삶을 추정하는 도구로(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 대표된다. 원 저자들이 이 두 변인을 준거 타당도로 삼아 본 연구에서도 준거 타당도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무망감, 부적 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로 강점 활용이 이들 변인과 부적 상관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거 타당도로 선정하였다.

또한, K-SUS의 변별 유용성을 위해 희망, 자기 효능감과 강점 활용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의 설명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K-SUS를 타당화 함으로써 국내 강점 연구에서 단순히 강점을 인지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강점 활용 연구를 촉진하고 한국 문화에서 강점 활용 및 긍정심리학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에서 SUS가 단일 요인 구조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82명이고, 그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설문지 29개를 제외한 총 45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적 구성은 평균연령이 27.03세( $SD=8.07$ )이고, 남자 155명(34.2%), 여자 298명(65.8%)이며, 대학생 304명(67.1%), 대졸자 92명(20.3%), 대학원 이상 57명(12.6%)의 분포를 보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K-SUS의 수렴 타당도(희망, 자기 효능감, 정적 정서), 준거 타당도(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무망감, 부적 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증에 위하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 9개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강점 활용과 희망과 자기 효능감은 관련이 있고, 좋은 것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정적 정서와 관련 있으나 차이 역시 존재하므로 수렴타당도의 추정치로 사용됨과 더불어 강점 활용이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알아보는 변별 타당도의 추정치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를 근거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강점 활용이 유의미한 예측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강점 활용 척도

강점 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는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자들이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K-SUS)이다. 척도의 번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한 번역 전문 번역가 1인과 연구자가 함께 한글로 번역(translation)하였고, 이를 영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번역가가 수정하였다. 둘째, 심리학 석사과정생이며 이중언어자(bilingual) 1명이 한글본을 영어로 역번역(back-translation)하였다. 셋째,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원어민 2인이 강점 활용 척도의 원문과 영어로 역번역된 척도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평정하였다. 넷째, 번안한 문항 가운데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미국과 한국 문화 모두에 익숙한 심리학과 교수 한 분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항을 번안하였다.

SUS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긍정심리학 문헌들을 검토해서 개발되었고 심리측정학을 통해 확인되었다.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는데, 1점(아주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아주 동의한다)까지로 응답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선정한 14개의 문항의 부하량은 .52-.79였고, 단일 ‘강점 활용’ 요인으로 56.2%의 설명량을 보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I am able to use my strengths in lots of different situations)’, ‘나에게는 강점을 활용하는 일이 익숙한 일이다(Using my strengths is something I am familiar with)’ 등이 있다. 강점 활용 척도는 Rosenberg의 자기 존중감 ( $r=.56$ )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 $r=.51$ )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 $r=.51$ )과 심리적 안녕

감( $r=.56$ )과도 상관을 보였다. Govindji와 Linley(2007)의 척도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강점 활용 척도 내적 합치도는 .92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정적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제작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을 이유정(1994)이 번안하고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NAS는 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10문항,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84, 부적정서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정적 정서 .75, 부적 정서 .86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삶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이다.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는 .86으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er등(1982)이 Bandura(1982)의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5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ES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이다. SES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5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 희망

희망 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는 Snyder(1991)가 개발한 척도를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2008)가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2, 9, 10, 12번), 경로사고 4문항(1, 4, 6, 8번), 허위문항(filler items) 4문항(3, 5, 7, 1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4=분명히 그렇다)로 평정되며 주도사고 점수와 경로사고 점수를 합하여 전체 희망점수를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

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SWB)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SWB는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1=전적으로 동의함, 6=전혀 동의하지 않음)로 평정한다. 6개의 차원은 자신의 삶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수용(self acceptance), 질적으로 높은 대인관계 능력인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신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autonomy), 자기의 삶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purpose growth), 지속적인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지각인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이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6(환경 통제) - .76(자아수용)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 무망감

무망감 측정을 위하여 Beck의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를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평가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는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을 이정은(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1= 전혀 없었다, 5=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정한 다.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K-SU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K-SUS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5주 간격)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K-SUS의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희망, 자기 효능감, 정적 정서와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무망감, 부적 정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상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SUS가 희망, 자기 효능감과 구별되는 고유변량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K-SUS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 분석

#### 연구대상자

설문지 참여자 중 207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원의 구성은, 평균 연령 27.46세(39.44)이고, 남자 74명(35.7%), 여자 133명(64.3%)이며, 대학생 133명(64.3%), 대졸자 44명(21.3%), 대학원 이상 30명(14.5%)의 분포를 보였다.

#### 결과

K-SUS의 잠재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과정에서, KMO 표본 적합도(Kai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가 .92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p < .001$ 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축 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을 시킨 결과를 표 1에 함께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는 문항 7, 8, 9, 11, 10, 14, 13은 .48-.80의 부하량을 보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문항 2, 3, 4, 1, 5, 12, 6는 .43-.78 부하량을 보여 또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다. 1번 요인은 48.88%의 설명량을 보이고, 2번 요인은 6.30%의 설명량을 보여, 2요인 구조를 통한 전체 설명력은 55.1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는 Govindji와 Linley가 처음 개발했던 단일 요인구조보다 2요인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신뢰도 검증

K-SUS의 신뢰도를 알아 보고자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

표 1. 한국판 강점 활용척도 신뢰도, 탐색적 요인 분석, 공통성 결과 (N=207)

문항	문항 제거시 <sup>a</sup>	요인분석		공통분
		1	2	
<b>강점 활용맥락</b>				
7. 내 일에는 나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다.	.92	<b>.80</b>	-.10	.55
8. 나는 내 강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92	<b>.79</b>	.08	.54
9. 나는 내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1	<b>.79</b>	.09	.72
11.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92	<b>.74</b>	.06	.60
10.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강점을 쉽게 활용하는 편이다.	.92	<b>.72</b>	.19	.72
13. 나에게서 강점을 활용하는 일이 익숙한 일이다.	.92	<b>.48</b>	.32	.64
14.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91	<b>.48</b>	.40	.53
<b>강점 활용노력</b>				
2.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을 발휘한다.	.92	-.03	<b>.78</b>	.60
3.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92	.07	<b>.72</b>	.59
4. 나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92	.15	<b>.70</b>	.63
1.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92	-.10	<b>.72</b>	.31
5. 나는 매일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92	.27	<b>.55</b>	.57
12. 나는 내가 잘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92	.02	<b>.43</b>	.20
6. 나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93	.37	<b>.43</b>	.53
전체 척도 Cronbach's $\alpha = .92$		고유치	고유치	
전체 설명 변량 55.19%		= 7.26	= 1.35	

을 구하였고, 5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25-.72의 범위를 보였고, Cronbach's  $\alpha$ 는 .92으로 나타나 K-SUS가 적절한 문항 내적 일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주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1로 나타나 K-SUS의 시간적 안정성도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

**연구 대상자**

설문지 참여자 중 24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원의 구성은, 평균 연령 26.67세(60.89)이고, 남자 83명(33.7%), 여자 163명(66.3%)이며, 대학생 171명(69.5.3%), 대졸자 48명(19.5%), 대학원 이상 27명(11.0%)의 분포를 보였다.

**결과**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표 2. 확인적 요인 분석의 부합도 지수

모형	Discrepancy	NFI	TLI	CFI	IFI	RMSEA
단일요인	$\chi^2 (77, N=246) = 359.903 p < .001$	.85	.86	.88	.88	.12
2요인	$\chi^2 (76, N=246) = 204.698 p < .001$	.91	.93	.94	.94	.08

N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IFI: 증분 부합치(Incremental Fit Index), RMSEA: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에 따라 2요인 구조를 연구 모형으로 단일 요인 구조를 경쟁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2요인 구조가 단일 요인구조보다 더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수들은 유의했고( $p < .000$ ), 전체 부합도도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값과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 비교 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 및 추정오차의 평균(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단일 요인 구조일 때는 NFI, CFI,

TLI 값이 .90 이하였으나 2 요인 구조일 때 NFI, CFI, TLI 값이 .90 이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들 값은 .90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 RMSEA값도 단일 요인에서는 .12 였으나 2요인에서는 .08로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RMSEA 기준: <.05: 좋은 모형, <.08: 적절한 모형, <.10: 보통모형).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수렴 타당도

K-SU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 효능감, 정적 정서 그리고 희망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표 3. K-SUS의 타당도 변인들 간의 상관

	1	3	4	5	6	7	8	9	10
1. 강점 활용	1								
2. 효능감	.52**	1							
3. 희망	.54**	.61**	1						
4. 정적 정서	.40**	.37**	.37**	1					
5. 부정 정서	-.17**	-.32**	-.18**	-.05	1				
6. 무망감	-.24**	-.34**	-.51**	-.15**	.25**	1			
7. 지각된 스트레스	-.34**	-.48**	-.39**	-.39**	.63**	.33**	1		
8. 주관적 안녕감	.44**	.39**	.48**	.32**	-.24**	-.33**	-.41**	1	
9. 심리적 안녕감	.55**	.71**	.69**	.41**	-.35**	-.48**	-.61**	.64**	1

\*\* $p < .01$

강점 활용 척도는 자기 효능감( $r=.51, p<.01$ ), 정적 정서( $r=.40, p<.01$ ), 희망( $r=.54,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에 이들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준거 타당도**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의 안녕감에 대한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무망감, 부적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r=.44, p<.01$ ), 심리적 안녕감( $r=.55, p<.01$ )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무망감( $r=-.17, p<.01$ ), 부적정서( $r=-.24, p<.01$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r=-.34, p<.01$ )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강점 활용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부적정서와 무망감,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에 이들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변별 유용성**

K-SUS의 변별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K-SUS가 활용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인 자기 효능감과 희망과 변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강점 활용, 자기효능감, 희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계 1에서 자기효능감, 희망을 투입하고 단계2에서 강점 활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단계 1에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24%의 설명량을 보였고 ( $R^2=.24, p<.001$ ), 단계 2에서 강점활용이 5%의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R^2=.29, p<.001$ ).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위의 절차를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61%의 설명량을 보였고 ( $R^2=.61, p<.001$ ), 강점 활용이 18%의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R^2=.79, p<.001$ ).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 하였다. 이는 강점 활용이 희망과 자기 효능감과 관련 있는 개념이고 이들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자기 효능감과 희망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희망, 강점 활용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D	$\beta$	adj R <sup>2</sup>	$\Delta R^2$
주관적 안녕감	단계1					
	자기효능감	.34	.11	.15	.24	.24***
	희망					
	단계2					
	자기효능감	.18	.11	.08	.29	.05***
	희망	.89	.15	.30		
강점활용	.34	.07	.24			

\*\*\*  $p<.001$ .

표 5.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희망, 강점 활용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1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	.46	.03	.47			
	희망	.51	.04	.41	.61	.61***	
			단계2				
	자기효능감	.42	.04	.43			
	희망	.45	.05	.36	.79	.18***	
	강점활용	.08	.02	.13			

\*\*\*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강점 활용 측정을 위해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 활용 척도(Strengths Use Scale)를 체계적으로 변안한 K-SU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K-SUS의 요인구조는 원 개발자의 단일 요인구조와는 달리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나타난 신뢰도 수준은 K-SUS가 내용적인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통해 K-SUS의 수렴 및 준거타당도, 변별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K-SUS는 자기 효능감, 희망, 정적정서와의 상관 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정서, 무망감,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강점 활용과 희망,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K-SUS가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안녕감에 대해 갖는 설명량을 넘어 고유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점 활용 척도가 Govindji와 Linley(2007)의 연구와 달리 단일 요인구조가 아닌 2요인구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간 차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문항을 해석하는 데에 문화적 적응, 언어, 편견, 고정관념,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Lopez, Ciarelli, Coffman, Stone, & Wyatt, 2000).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또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강점 활용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 요인이 되지만, 강점 활용 내용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 1은 ‘나는 내 강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등 외부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하여 강점을 활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요인 2의 내용은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을 발휘 한다’, ‘나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 한다’등 개인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강호(2006)는 서양 문화를 자기고양(self-enhancing)의 문화로 동양

문화를 자기 개선(self-improvement)의 문화로 보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데는 서양이나 동양 사회 모두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 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개인주의 사회로 대변되는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고유성, 자율성, 주도성 등을 삶의 만족 정도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지만, 집단주의 문화가 만연한 동양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수용되는 정도와 관계에서의 조화 여부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 유형에 따라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서로 다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내적 속성을 가능한 한 많이 갖는 것이 자기향상의 지름길로 보아, 자기가 가진 긍정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집단과의 연계성과 책임의 수행을 통해 개인의 존재 의의가 드러난다. 따라서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대신, 자기의 단점을 개선하는 데에서 자기향상이 이루어진다(조궁호, 2008).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강점 활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드러내어 사용하기보다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희경과 이동귀(2007)는 인간은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문화에서 서구에서 개발한 긍정심리학적 개입방법과 척도를 적용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구식 개념인 강점의 활용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의 2요인 구조는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를 강조하여 관계와 상황을 고

려하여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집단주의를 반영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근거로 강점 활용의 2요인의 명칭을 요인 1은 강점이 활용되는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강점 활용 맥락(strengths use context)’으로, 요인 2는 강점을 활용하는 개인의 내적인 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강점 활용 노력(strengths use effort)’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의 2요인 구조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 검증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Govindji와 Linley(2007)는 강점 활용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최근 구조방정식 전문가들(예, 홍세희, 1999)은 주성분 분석은 잠재적 요인구조를 분석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아니며 단지 많은 성분들이나 문항들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 잠재요인분석, 특히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서는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이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 주축요인추출 방법을 통한 통계적 검증으로 2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원 도구 개발자와의 통계적 검증의 차이에서 나타난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제한된 표본이므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대학(원)생과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

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들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많이 활용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별, 다양한 대상(중년 여성, 노인, 청소년 등)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강점 활용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강점 활용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나 실험 등의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점 활용이 한국인의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서양인들과 어떤 뚜렷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강점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K-SUS를 타당화 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강점의 인식과 발견에 초점을 두던 방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점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입을 위한 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강점 활용을 측정함으로써 강점 활용 및 활용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타당화된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강점 활용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석만 (2009). 서울대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성격 강점 검사의 개발. 연구보고서.

- 김광은, 윤유경, 권석만, 하승수 (2010).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관생도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233-248.
- 김정주 (2010).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과 학교생활 적응도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석. 인간발달연구, 15(4), 17-35
- 안선영 (2010). 성격강점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인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두리 (2011).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1-167.
- 이정순 (2011). 강점 인식, 태도 및 활용과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초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강점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 연구, 12(2), 467-488.
- 이희경, 이동귀 (2007). 긍정심리학적 인간이해와 변화. 인간연구, 13, 16-42.
- 임영진 (2010). 성격 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공호 (2006). 이상적 인견형론의 동·서 비교. 서울: 지식 산업사.
- 조공호 (2008).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서강대학교 출판부.
-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 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최은미 (2009). 성격적 강점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ex M. Wood, P. Alex Linley, John Maltby, Todd B. Kashdan, Robert Hurling (2010). Using personal and psychological strengths leads to increases in well-being over time: A longitudinal study and the development of the strengths use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5-1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uckingham, M. (2007). *Go Put Your Strengths*. New York: Free Press.
- Burns, B. B., Brown, J. S., Sachs-Ericsson, N., Plant, E. A., Curtis, J. T., Fredrickson, B. L., & Joiner, T. E. (2008).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s and coping: Replications, extension, and initial exploration of neurochemical subst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360-370.
- Diener, E, Shu,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arsen, R. J. (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405-415). New York: Guilford.
- Fredrickson, B. L. (2002). Positive Emo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use, self 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 143-153.
- Kyes, L. M., Shmotkin, & Ryff,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Linley, P. A. & Harrington, S. (2006). Playing to your strengths. *The Psychologist*, 19, 86-89.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pez, S. J., Ciarlelli, R., Coffman, L., Stone, M., & Wyatt, L. (2000). Diagnosing for strengths: On measuring hope building blocks.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57-8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tthews, M. D., Eid, J., Delly, D., Bailey, J. K. S.,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of developing military lead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Military Psychology*, 18, S57-S6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k, N., & Peterson, C. (2005). *Strengths of character and academic achievement*.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ark, N., Peterson, C.,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s and fifty US stat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 118-12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chutte, P. S. & Ryff, D. C.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What is the conn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 410-421.
- Shimai, S., Otake, K.,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onvergence of character strengths in American and Japanese you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11-322.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Jr.,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 Emotion*, 12, 807-823.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1 차원고접수 : 2012. 6. 29.  
수정원고접수 : 2012. 8. 24.  
최종게재결정 : 2012. 8. 29.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rengths Use Scale (K-SUS)**

**Bookum Park**

**Hee-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rengths Use Scale (SUS; Linley & Govindji, 2007). Four hundred and fifty-three undergraduates, graduated students, and employees completed the research packet.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voured the two-factor structure of the K-SUS in this sample over the one-factor structure. Also,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provided support for the reliability of the K-SUS. The K-SUS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measures of positive affect, satisfaction with life, hope, self 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negatively with negative affect, hopelessness, and perceived stress. This supports good converge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SUS. Also,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uggested that the K-SUS accounted for unique additional variance in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yond the variance explained by self-efficacy and hope. This study discussed potential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hope, the utility of the K-SUS, and study limitations.

*Key words* : *strength, strengths use, strengths use scale, validity, reliability, positive psychology*

부 록

강점 활용 척도(K-SUS)

※ 다음 문항의 내용이 **본인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잘 판단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을 발휘한다.	1	2	3	4	5	6	7
3.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매일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1	2	3	4	5	6	7
7. 내 일에는 나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강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1	2	3	4	5	6	7
9. 나는 내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	2	3	4	5	6	7
10.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강점을 쉽게 활용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11.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2. 나는 내가 잘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한다.	1	2	3	4	5	6	7
13. 나에게서 강점을 활용하는 일이 익숙한 일이다.	1	2	3	4	5	6	7
14.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7